

www.catholicbusan.or.kr

제2710호 2022, 6, 19,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사진: 김지백 바오로 (거제동성당)

입 당 송 시편 81(80),17

내 백성에게 나는 기름진 참밀을 먹이고, 바위틈의 제2독서 코린토 1서 11,23-26 석청으로 배부르게 하였노라.

제1독서 창세기 14.18-20

화 달 송 시편 110(109),1.2.3.4 (◎ 4ㄴㄷ)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1.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 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 에 앉아 있어라." ◎
- 2.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뻗치시리이 다. "너의 워수들을 다스려라." ◎
- 3. 네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에서, 나는 너를 낳았노라. ◎
- 4.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멜키 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부 속 가 <성체 송가: 21절부터 시작해서 짧게 할 수도 있다.>

21.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22.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23.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24.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 환호송 요한 6,51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빳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음 루카 9.11ㄴ-17

영성체송 요한 6,5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6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가정들)

강통

아비의 살을 먹어야 하는 운명

우리는 매일 봉헌하는 미사를 통해 성체성사를 거행합니다. 미사는 단 순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 에 따라 교회가 행하는 전례이고 성 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 해서 당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제자 들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체성 사를 제정하시고, "너희는 모두 이것 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 을 받아 마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다시 한번 당신을 내어 주십니다. 당신 친히 제관이 되시 고, 희생제물이 되시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십 자가상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벗 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말씀을 몸소 보 여주셨습니다.

눈물겨운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조창인 작가의 소설 가시고기를 기 억하시는지요? 가시고기는 부성애를 대표하는 물고기입니다. 가시고기는 3종류(큰가시고기, 가시고기, 잔가시고기)인데, 큰가시고기는 바다에서 살다가 해마다 이른 봄이면 산란을 위해 하천으로 올라옵니다. 둥지가 완성되면 암컷은 그곳에 알을 낳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끝냅니다.

반면 수컷 가시고기는 알을 먹기 위해 모여드는 천적과 침입자를 물 리치고 알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앞 지느러미로 부채질하며 끊임없이 둥지 안에 새 물을 넣어줍니다. 부화 한 지 5일 정도가 지나면 새끼들은 둥지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둥지를 떠났던 새끼들은 죽은 수컷 주위로 모여듭니다. 자기를 위해 희 생한 아비를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 니라 아비의 살을 먹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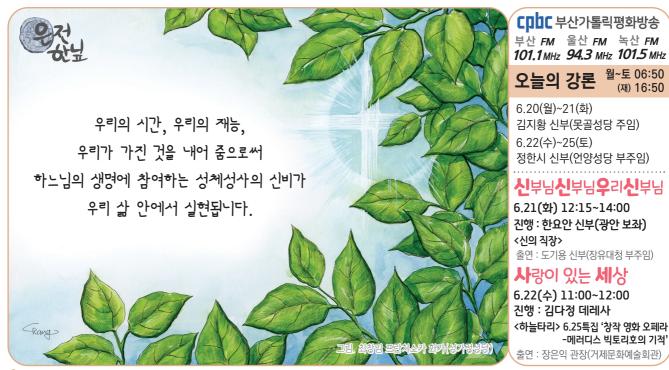
생명의 빵인 예수님은 오늘도 제

자들과 나누었던 식탁에 우리를 초 대하십니다.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 인 일. 바로 식사를 통해서 당신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에 나 오는 것처럼 오천 명을 먹이실 때도 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것도 바로 빵을 떼어 주실 때였습니다.

하느님 자녀들은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갑니다. 가시고기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기꺼이 죽음으로써 자신의살을 내어주는 것처럼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과 예수님의 내어주심 그고귀한 사명에 대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김 지 황 바오로 신부 못골성당 주임





2•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순교자의 후손은 살아있다.

30여 년 전의 일이다. 당시의 나는 2014년 복자품에 오른 이정식, 양재 현을 비롯한 부산교구의 순교자들에 대한 행적을 조사-연구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시대 천주교 를 믿어 죽임을 당한 이들의 행적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서울 출신 이나 양반 엘리트 가운데 순교한 이 들의 행적은 그래도 관청이나 교회 측 자료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는 그릴 수 있다. 그렇지만 지방사회나 중간계급 이하의 신자들은 기록의 부재로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천주교와 관련 있는 자들 은 사학죄인(邪學罪人)으로 처벌받 아 가문과 지역사회에서 배척당하 였고, 천주교와 관련된 문서 기록들 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 기에 지방에서 천주교 신앙을 수용 하여 죽은 사람들의 행적을 조사하 려면 오랫동안 발로 뛰면서 밑바닥 을 훑는 작업이 필요하다.

동래지역 순교자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에 대한 기록이 매우 미미한 가운데 다행히 양재현의 순교를 기억하는 후손들이 증언한 소중한구술 조사 기록이 남아 있어 새로운 조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기록으로 양재현의 거주지와 신분 정도를 알 수 있었다. 그는 좌수였으므로 동래지역 양반 가문의 구성원으로 추정되었기에 그의 행적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좀처럼행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많은노력을 통하여 양재현을 비롯한 순교자들의 사적을 밝힐수 있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순교자의 후 손이 겪은 고통이라는 새로운 역사 와 만난 것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박해 직후 양재현의 후손은 경북 의 성으로 이주한 후 다시 각지로 흩어 졌다. 이 와중에 선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잊은 채 오로지 순교했다는

사실 하나만 전승되어 그 행적을 찾 아다녔다고 한다. 양재현의 후손들 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 었으며. 선조의 순교 사실을 알려주 니 너무나 기뻐하였다. 후손들의 기 쁨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 직후 경기도와 대구에 흩어져있던 10여 명의 후손은 부산으로 한달음 에 달려와 오른대순교자성지에 있 는 선조 양재현의 묘소 앞에서 극적 인 순간을 맞이하였다. 당시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앞에서 기념 촬 영을 했는데, 박물관의 출입구 벽면 위에 '순교자의 후손은 살아있다'라 고 크게 적힌 글귀가 정말이지 마음 에 와닿았다.

그렇다. 순교자의 후손은 살아 있 었던 것이다. 박해로 점철된 한국교 회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우리 모두 는 순교자의 후손이 아닐까?

> ■ **소 숙 경** 프란치스카 로마나 온천성당 · 전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공동의집 골보기

제4장 통합 생태론

137. 모든 것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오늘 날의 문제들이 세계적 위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 는 시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 사회적 차원을 분명히 존중하는 **통합 생태론**의 다양한 요소들에 관한 성찰을 제안합니다.

『찬미받으소서』137항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찬미받으소서』 137항 영상 보기 낭독 : 시각장애인선교회 강준기 다니엘 부산교구민준화 함께 함는 안선이받으소시로 생각되고 개최 등 등 생각되고 가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다.









하루의 마무리는 내가 남긴 생태발자국을 계산하며 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친교 | 참여 | 사명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부산교구 단계 종합보고서

부산교구는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를 시작하며 지난해 10월부터 하느님 백성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경청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진행위원회는 이들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고 식별한 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교구장 주교님 께서는 부산교구 종합보고서를 인준하고 승인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의 요약문입니다.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부산교구의 하느님 백성은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고 있 는가?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실행하는 데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 의견들을 경청하고 수렴하고 종합 한 결과.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 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막론하고 답답해하고 힘 들어하는 현실이다.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이 개인주의적 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우선시하여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평신도들은 성직자들이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신자들에게 영적 생명 을 전하는 데 소홀하다고 생각한다. 교구와 본당의 시노 드적 기구는 성직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신 도들은 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저항한 다. 성직자와 평신도들 사이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약해 졌고, 수도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힘겨워하며 자 기 역할에 대해 회의적이다.

지금 교회 구성원들은 서로를 향한 분석과 판단은 능 하지만, 자신을 향한 성찰은 매우 부족하다. 마지못해 관계를 이어가고, 각자도생하려는 경향도 강하다. 이를 방치하면, 하느님과 일치하고 이웃과 친교 하는 교회의 본질이 훼손될지 모른다. 부산교구 교회는 영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어렵 고 아픈 현실을 의식하고 직시해야 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청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

> 기를 원하신다. 세상의 가치와 인간적 재능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다. 성 령 하느님께서 우리를 하느님 의 생명으로 채워주시 기를 기도해야 한다.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을 밟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직중심주의가 약화되어야 한다. 성직자는 섬기고 돌 보는 사람이다. 성직자 스스로 신앙의 모범이 되어 평신 도들을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온유하고 겸손 한 마음으로 평신도들에게 다가서며. 그들 안에 활동하 시는 성령 하느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순응해야 할 것이 다. 쉬운 일은 아니다. 성직자들이 시노달리타스의 정신 으로 양성되지 않았고, 귀감이 되는 모델을 찾기도 어렵 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마르 6,50)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굳센 믿음으로 의탁해야 한다.

평신도들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야 한다.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 인간적 가치를 내세우며 교회에서 활동하면 공동체가 분열된다. 복음적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화되고 성화되 도록 신앙생활에 항구해야 한다. 마음속 깊이 움직이는 영적 갈망에 따라 기도하고 공부하며 애덕 실천에 정성 을 기울여야 한다.

교구와 본당의 시노드적 기구는 평신도들의 적극적 참 여를 통해 활성화된다. 성직자 중심의 기구 운영은 평신 도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가져오지 못했다. 시노드 정신 의 실천이 참으로 요청된다. 평신도와 수도자를 포함하 는 교구의 사목 평의회 개설도 필요하다.

800여 년 전 주님께서는 "프란치스코야, 가서 허물어 져 가는 나의 교회를 고쳐 세워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다. "가서 아파하는 나의 교회를 낫게 하여라." 부산교구의 하느님 백성은 영적으로 나약하고 힘없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 라는 사명을 받고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 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부산교구의 주보,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교구

개국 22주년 맞은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가톨릭평화방송(사장: 박명 제 신부)이 개국 22주년을 맞아 지 난 5월 28일(토)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전에서 교구장 손삼 석 주교의 주례로 감 사미사를 봉헌했다.

아울러 지난 5월 2일(월)에는 가톨릭 센터 소극장에서 개 국 22주년 기념 공

개방송을 통해 청취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감사미사 봉헌금과 공개방송 모금액은 교구 로사리오 카리타스에 기부했다.

레지오 이외 행시

레지오 마리에 100주년 기념

부산 바다의 별 레지아 주관 (지도 : 이장환 신부, 단장 : 박용혁 가롤로)

레지오 마리애

야외 햇사

6월 11일(토)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 요한의
생활성가

문현성당, 성체성사학교



문현성당(주임: 박종주 신부, 회장: 박태근 안드레아)은 성체와 말씀의 해를 지내며 6주 과정(5월 7일~6월 11일)의 '성체성사학교'를 열어, 신자들에게 성체성사와 미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5월 15일(일) 주임: 최현욱 신부, 회장: 오승기 펠릭스



주임: 서정웅 신부, 회장: 정창환 안토니오



5월 15일(일) 주임 : 서강진 신부, 회장 : 김발영 요셉



5월 15일(일) 주임 : 박혁 신부. 회장 : 황적성 토마스

주님 사랑이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말합니다. 성체성사는 "우리 신앙의 요약이고 집약이다."(1327항) 교회가 2000년의 역사 안에서 변함없이 고백한 성체성사의 중요성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미사성제에 참여하지 못할 때 더욱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곡은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소개해 주는 곡이라 생각됩니다. 나의 눈물, 어둠과 부족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심에도 아깝지 않아

▮ 김연기 라파엘라 글 / 오세익 가롤로 곡 서계라는 사사은 이 차야요 주어하니다.

하시는 사랑이 곧 성체라는 사실을 이 찬양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부르시고 채우시며 그 사랑에 온전히 머물기 원하심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성심은 복녀 요세파 수녀님을 통해 "나는 성체성사 안에서 사랑의 포로가 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 니다.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 그 소중한 가치

를 쉽게 잊고 살아가는 모두에게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성체 안에 현존하시 는 예수님의 풍요로운 은총을 이 찬양으로 선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훈 사도요한 (금정성당)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루카 9,13)

[나만의 성구]

☜ 절취선

위의 복음 구절을 따라 쓰거나, 나의 마음에 와닿은 나만의 성구를 적고 암송해 봅시다.

* 1년 간 (2021.11.28.~2022.11.20.) 작성 후 모아서 보내주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교 국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

- · 6. 20(월) 10:00 묵주기도, 10:30 미사
- ·교구청 5층 강당 / 문의 : 629-8760(성소국)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울산)

- · 6. 24(금) 13:30 묵주기도, 14:00 미사
- ·월평성당 / 문의: 629-8760(성소국)

울산대리구 사회사목 직원 구함

주요업무: 이주노동자 및 극빈자 관련 행정 및 회계, 간단한 통역, 병원 안내 등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명일 09:00~18:00, 주일 10: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 문의 : (052)201-6505(단, 울산광역시 거주 신자만 신청할 수 있음)

부산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

내용 : 스튜디오웨딩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특전 : ① 커플당 286만원 할인 ② One Stop 혼인 준비 ③ 교구 유지재단 직원 상품권 증정 문의 : 441-3500, catholicwedding kr 르 딩

모라성요한성당 반주자 구함

오르간 전공자 환영 / 문의 : 316-1009(성당 사무실), 010-9313-0826(성가단장)

기관·제 단체·위원회

시각장애인선교회(큰빛) 후원회 미사

· 6.20(월) 11:00 · 선교회 3층 성전 문의 : 464-3909(시각선교회)

부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6, 21(화) 매월 세번째 화요일 · 가야성당 14:00 체나콜로 기도(성체현시 및 강복, 고해성사) 15:00 미사 및 안수(티없으신 성모님께 봉헌식) 지도 : 윤명기 신부 / 문의 : 010-8879-2376

전례꽃꽂이연구회

미리보는 전례꽃꽂이 미사 및 월례회

·6.27(월) 10:30 ·사직성당

문의 : 010-5186-4532, 010-4242-5025

해양사목 해양가족 및 후원회 미사

· 6.21(화) 14:00 · 가톨릭센터 6층 경당 주례 : 김현 신부 / 문의 : 464-2707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 · 6.24(금) 10:30 / 세계오지선교회 차량지원
- · 남천성당 / 문의: 623-4528(사무실)

교구평협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6,25(토) ·삼랑진역(09:00) 출발~김범우묘 기차 : 부산역 07:39, 08:21, 구포역 07:53, 08:34 점심식사 : 개인도시락 지참

점점식사 : 개인도시닉 시점 문의 : 629-8722(교구평협 사무국, 선교사목국)

가톨릭센터 가톨릭 성미술 조각 전시회 〈영월 종교미술박물관 부산전시회〉

· 6. 22(수)~7. 5(화) · 대청갤러리(가톨릭센터 內) 전시내용: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성모님의 은 혜를 아름다운 조각미술로 표현한 전시회 문의: 462–1870. www.bccenter.or.kr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문의 : 462-0334(평일 14:00~17:00)



창작 영화 오페라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기적

일시 / 7월 1일(금) 19:30, 2일(토) 16:00 장소 / 을숙도문화회관

*전석 초대(선착순)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20명 이상 단체관람 : 전화 문의 051)220-5811

6·25전쟁 흥남 철수 당시 배에 실려 있던 무기를 모두 버리고, 피난민 1만 4000명을 태우고 기적 의 항해를 했던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위대 한 이야기를 담은 창작 오페라이다. 메러디스 빅토 리호를 이끌었던 레너드 라루 선장

은 이 항해를 마지막으로, 2001년 10월 14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리너스(Marinus)수사라는 이 름으로 뉴턴 세인트폴 수도원에 서 평생 수도자의 삶을 살았다.

선장 년 | |

오두종성형외과

성형수술, 레이저시술, 피부과 진료 성형외과 전문의 : 오두종(요한)

805-0200

카톡상담 ID : 오두종성형외과 서면 쥬디스태화 맞은편 우리은행 5층

법무법인 대한중앙

(사무실 확장·이전)

민·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상담

대표변호사. 정 민 (가브리엘)

소화기/간질환, 위/대장내시경, 초음파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건강보험공단 지정검진기관

바룸내과의원

내과전문의 2명 **문재현, 박기태(베드로)** 지하철역 온천장역 1번 출구 150m

SK허브올리브 3층 558-5608

준요양병원

재활중점/치매/노인성질환 병원장. 최 준 식(안토니오)

714-3681, 010-9594-2360 상담, 문의 525-7711

부산법원 정문 맞은편 골목 안 와우빌딩 2층 부산 동래구 안락동 433-5번지(충렬대로 372) 범내골역 2번 출구 앞 제2항운병원 4층

바티카노

성물, 전례용품 전문점 디자인 묵주반지(금,은)

517-4224 010-5488-4224

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 앞

눈시원안과

이 현 석 (분 도)

전. 굿모닝 성모안과 공동원장 백<mark>내장, 노안교정, 라식/라섹, 드림렌즈</mark>

631-6622

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

정 경 우 (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2층

744-8181 상담 010-5616-8600

^{덕천} 길맥외과의원

하지정맥류 중점 클리닉 원장. 박 우 일(요셉)

331-8888,8899 덕천역 9번출구 앞 파리바게트 건물 6층

제주도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는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064)758-6476 010-4566-6476

이상열마취통증의학과의원

허리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목·어깨통증(오십견), 손·발 저림 및 시림 지하철 1호선 구서역 1번출구 앞 원장/전문의 이 상 열(베드로)

516-0888

성령쇄신 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집

- -수요치유미사
- · 6.22(수) 13:00~15:00
- -금요밤미사(예수성심대축일)
- $\cdot 6.24(\frac{1}{10}) 20:30 \sim 22:30$
- -젊은이 기도회

부산: 6.27(월) 19:30 전포성당 울산: 6,22(수) 20:00 대리구 별관 -469차 교구성령묵상회(젊은이) · 7. 22(금) 17:00~24(일) 17:30 회비: 15만원(차량운행 없음)

성령쇄신 봉사회 (052)244-7014 울산 영성의집

- -성령기도회목 밤미사
- · 6.23(목) 19:50~21:30
- -100단 묵주기도
- · 6. 20(월) 12:00~15:30(미사)

로사리오의집 문의: 010-7155-3498

-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
- ·매월 2주 토요일 10:00~16:00(중식 제공) 7.9(토), 9.17(토)
- 파우스티나 성녀와 함께하는 미사
- ·매주 금요일 13:30~15:30
- 미사, 자비의 시간 오후 3시 기도
- 파우스티나 성녀와 함께하는 성시간·미사
- ·매주 화요일 19:00~21:00
- 파우스티나 성녀 일기 통독피정
- · 8.19(금)~21(일), 8.26(금)~28(일)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자격: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1학년의 세례받은 가톨릭 신자 (2022년 첫 영성체 예정자) 제출서류: 입단지원서(부산가톨릭평화방송 홈 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세례증명서, 증명 사진 1매(입단지원서에 첨부) / 원서접수 : 우편 (48968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71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이메일(bscpbc@outlook.com) 서류접수마감: 7.17(일), 오디션: 7.23(토) 13:00 문의: 600-8800,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직원 구함

모집부문: 방송기술(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 설비기능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기능 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신입 및 경력 접수: 6.12 ~ 채용시 까지. 이메일 접수만 가능 (bscpbc@outlook.com) / 문의:600-8800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젊은이 주보

Youth Week



❖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시각장애인선교회 상설고해소 운영

·매주 화 14:00~16:00 · 선교회 3층 성전 사전예약제 시행 / 전화면담 가능 문의: 010-5166-1993(박성태 신부)

교육·모집·기타

이태석신부 참사랑 후원미사

· 6.25(토) 10:00 · 이태석신부기념관 4층 문의: 241-1601

자살유가족 마음돌봄 피정

· 6.25(토) 13:00~18:00 · 성심영성센터 문의: 010-8811-6187

살레시오 무료특강

· 7.1(금) 10:00~11:30 / 접수: 6.30(목)까지 주제: 우리 아이 생각근육 키우기 대상 : 관심 있는 누구나/미디북 학부모 문의: 622-2431(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성바오로서원 이전 안내

이전일: 7.1(금) / 이전 장소: 금정구 오륜대로 118 번길 52 성바오로수도회 內 (오륜대 성지 근처) 문의: 010-4271-8897, 팩스: 521-8897

흰돌요양센터 조리원 급구

주 40시간

문의: 751-0561(흰돌요양센터)

복지이음이 봉사단 참여자 모집

신청자격: 만 60세 이상 누구나

활동내용: 복지서비스조사 및 정리, 자료배부 활동일정: 6월~11월 매주 (수) 15:00~16:00

문의: 241-2591(중구노인복지관)

고영민 안드레아와 함께하는 치유피정(무료)

·7.1(금) 18:00~2(토) 17:00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

버스 : 조치원역 앞 신한은행 17:00, 청주고속터미널 앞 시내버스 정류장 17:20 문의: 010-4400-1344, (043)213-9103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7.8(금)~16(토) 효소단식: 7.21(목)~24(일)

문의: 010-3340-0201(횡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cdot 7, 3 \sim 5, 7, 8 \sim 10, 7, 23 \sim 25, 7, 31 \sim 8, 2, 8.6~9, 8.13~16, 8.27~29, 9.3~6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피정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접수: (02)773-1455, (064)796-4182

양업고등학교 대안 좋은학교 연수

· 7.16(토)~17(일) 1박 2일 · 학교

대상: '좋은학교'에 관심있는 교사, 학부모 접수 : 7.5(화) 10:00~ 양업고 홈페이지 팝업창

회비: 인당 8만원(입학전형 안내 포함)

문의: (043)260-5076

포콜라레 여름 마리아폴리

· 7. 22(금)~24(일) · 경주 코모도 호텔 주제: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신청 : 6.22(수) 12:00~28(화) 17:00, 포콜라레 홈페이지(www.focolare.or.kr)

문의: 010-5800-8988(포콜라레)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안내

전입학설명회: 7.2(토) 14:00 여름진학캠프: 8.6(토)~7(일)

대상: 현초6~중2 / 문의: (054)338-0530

국악성가 캠프 참가자 모집

· 8. 26(금)~28(일) · 양산 영성의 집 교육내용: 국악미사곡, 전례곡 등 지도: 강수근 신부 / 참가비: 25만원 국민 295401-01-187345 송민영(국악성가)

신청 및 문의: 010-2279-0255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할인: 성직자, 수도자, 장애인(전화필수)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 시 장 문 수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6.26(일) 13:30 수녀회 본원 010-2835-4858 살레시오회 수시(문의바람) 창원 젊음의 집 010-2042-8353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2011.6.22. 박만춘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2008.6.25. 박문선 (야고보) 신부님

'옥에 타'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따)

758-1100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홍조·주름개선

모니카주단·한복

혼수예단, 결혼예복, 한복대여 김 필분(모니카), 황지은(마리아)

645-5127, 010-3553-5127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151, 152호(1층 4호문 중간)

수맥연구소 제154차 | 동의의료원 무릎관절센터 |

5주교육과정 무료진행 '수맥파, 아는만큼 피할 수 있습니다. 32년 경력, KBS아침마당 출연

문의 517-3233

서순복(발비나) 010-3862-6834

도 로 연 수

경찰청 지정 전문학원강사 책임 지도 전문강사: 김 정 근 (바실리오)

010-6555-8655

도로연수는 나와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무릎 관절염, 무릎 인공 관절 관절 내시경, 스포츠 외상 정형외과. 송 무 호 (토마스) 박사 미국 피츠버그 대학병원 전임 의사 영국 옥스포드 대학병원 연수

관절센터 예약 850-8747

대신동 킴스피부과

김형진(펠릭스) · 황혜령(뽈리나) 피부질환 및 피부미용 전문의 3인 진료

동대신동역 246-9999

뉴욕초이스치과

임플란트, 심미보철, 틀니 미국임플란트전문의 최상종 치의 학 박 사

866-2806, 2807

지하철 연산역 5번출구, E메디컬센터 5층

미카엘여행사

국내성지순례 모집 제주성지 순례 3일/4일 매주 월요일, 금요일 출발 한국성지167 완주 인천, 의정부 6/27~30

010-8650-9690

가안방문요양센터

이용상담/노인장기요양 상담 및 신청대행/자택돌봄(방문요양)

국비지원(100~85%) 교우 요양보호사 대기중

최유희 의 원 의 010-3560-7285

독일보청기

부산최초제조허가, KGMP(우수제조)인증업체 복지카드소지자(수급자무료제작 일반90%혜택) 도인 미국 스위스 수인디지턴보처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석 수리 김 무 나 (글라라) * 교우 특별 **할인** *

803-5588,1871

서면 지하철역 4, 6번 출구(1충, 빨간색 간판)